

'공동체' 모색하는 유럽의 어제와 오늘

유럽 역사 다룬 책들 잇따라... 다양성 넘치는 대륙 이미지 전달

경제적 통합을 목전에 두고 있는 유럽은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지구촌은 하나'의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선례다. 언어와 문화, 역사와 전통도 제각각인 개별국들이 일구어가고 있는 공동체의 꿈은 한민족이면서도 아직껏 통일을 이뤄내지 못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그렇다면 유럽이 지닌 힘은 어떤 것인가. 유럽이 지닌 공동체의 꿈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유럽은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최근 출간된 유럽 역사서들은 유럽에 대한 이런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다.

《유럽의 발견》(까치), 《유럽을 생각한다》(문예)를 필두로 《중세유럽의 도시》(신서원), 《유럽의 산업화와 노동계급》(까치) 등이 그것으로, 이들 책은 각기 다른 관심과 접근방식, 목적으로 유럽 각국이 지닌 다양한 역사를 우리 앞에 펼쳐보인다.

《유럽의 발견》《유럽을 생각한다》는 '유럽은 공동체가 아니다'는 전제를 공통으로 한다. 유럽은 '정돈되고 평온한 합리적인 대륙'이 아니며 '전쟁과 분열만을 공동의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말이다. 두 책의 저자는 이런 전제하에 각기 다른 관점으로 유럽의 역사를 살핀다. 흥미로운 점은 두 저자 모두 이 책을 통해 진정한 유럽의 공동체를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

'유럽은 공동체가 아니다'

《유럽의 발견》(김경근 옮김)의 저자 엠마뉘엘 토드(프랑스 국립인구연구소 차장)는 '정치적 통합이아말로 진정한 유럽 공동체의 실현'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인류학적 유럽사'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서 16세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약 500년에 걸친 유럽의 '화려한가 하면 유희적'인 역사를 '가족문화'라는 흥미로운 관점으로 분석해낸다.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일어난 이유, 산업혁명을 최초로 수행한 영국이 20세기에 들어와 무력해진 이유, 프랑스에서 18세기부터 탈기독교화와 출산조절이라는 전위적 관행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 등이 당시의 '가족제도'나 종교 등 인류학적 요소를 들여다봄으로써 밝혀진다.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오래고 질기게 직계가족 중심의 가족제도가

유럽의 역사를 살핀

책들이 활발히 소개되고

있는 것은 유럽을 '서구'라는

덩어리로 싸잡아 이해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평가받고 있다.

이들 책은 다양성이 넘쳐나는

대륙으로서 '공동체' 건설의

기초가 되리라는 메시지를

직·간접으로 전하고 있다.

온전히 보존되고 있는 우리의 가족제도의 특징은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정치적 보수화의 한 원인은 아닐까.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단일한 정치권력의 건설은 대륙을 가로질러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생활 형태들에 대한 정직한 비교를 전제로 한다".

"오랫동안 나는 '반유럽주의자'였다"고 서장을 연 프랑스의 대석학 에드가 모랭의 《유럽을 생각한다》(임문영 옮김)는 유럽의 역사와 현재에 관한 일종의 에세이다. 고대부터 근대, 나아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로 문화와 유럽인들의 의식의 변화 및 성장과정에 초점을 두고 살핀다. 히틀러의 '새로운 유럽'에 강력히 저항한 바 있는 저자는 지역주의의 팽창이나 특수 인종의 우월성,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폐쇄적 연대가 아니라 인류 공동의 평화와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개방적 연대야말로 '유럽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강조한다. 프롤로그를 통해 한 인본주의자의 인생편력을 읽는 맛도 예상롭지 않다.

《중세 유럽의 도시》(앙리 피렌느/강일휴), 《유럽의 산업화와 노동계급》(안병직 외)은 통사적인 고찰을 하고 있는 앞의 두 책과는 달리 한정된 시기, 한정된 주제에 대한 집중적인 고찰을 시도한 책이다. 《중세 유럽의 도시》는 '도시'라는 새로운 정치·문화의 중심지를 통해 중세 유럽의 면면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12세기에 존재했던 중세 도시는 코뮌으로서 상업과 산업으로 살아갔고 요새화된 성벽의 보호를 받았으며,



최근 나온 유럽 관련서는 '공동체 건설'의 새로운 꿈을 제시하는 공통점을 지닌다.

예외적인 법·행정·사법권을 향유했다. 아울러 도시의 특권계층인 부르주아지들은 세속적인 문화를 주도적으로 생산하며 미래에 벌어질 유럽의 중요한 사상운동인 지식인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에서의 역할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 결론.

《유럽의 산업화와 노동계급》은 노동계급의 형성과 노동운동의 발전 과정을 통해 19세기 유럽을 들여다보는 중요한 거울이 되는 책이다. 특히 국내 학자들의 공동연구로 씌어진 책이라 의의를 더하는데, 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스웨덴 등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들에서 이루어진 산업화의 과정이 지니는 보편성과 개별적인 특성을 비교 고찰한다.

유럽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한편, 최근에 출간된 책 외에도 유럽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현재 유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데 도움을 주는 책들이 몇 권 더 있다. 주로 유럽의 경제통합이 선언된 1993년에 출간된 것들로 《유럽문명의 신화》(E.L. 존스/유재천, 나남) 《유럽민족의 정신》(앙드레 시드프리트/민희식, 탐구당) 《유럽사의 경계와 구분》(오스카 할레키/최영보, 탐구당) 《유럽 통합사》(D.W. 어윈/노명환, 대한교과서) 등이 그것이다.

《유럽문명의 신화》는 오늘날 유럽문명을 있게 한 배경을 아시아와의 역사적 비교를 통해 분석한다. 유럽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유효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 이에게는 더없

이 적절한 책이 아닐 수 없다. 《유럽 민족의 정신》은 라틴인의 현실주의, 영국인의 완고함, 프랑스인의 지성, 독일인의 규율, 러시아인의 신비주의 등 유럽의 각 민족들이 지닌 정신적인 특징을 그들 문명의 특성과 함께 고찰한 책이다. 비록 유럽대륙에 국한된 고찰이기는 하지만 유럽의 실체를 흥미진진하게 파고들 수 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유럽의 역사를 살핀 책들의 출간이 활기를 띠고 있는 현상에 대해 김경근(전북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사회주의 정당이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정권을 창출하기도 하는 유럽 사회의 열린 구조가 주는 신선함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 같다"고 분석한다. 아울러 김교수는 이들 유럽 역사서들이 유럽을 '서구'라는 뭉뚱그린 덩어리로 싸잡아 이해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들 책은 한결같이 유럽이야말로 다양성으로 넘쳐나는 대륙이며, 바로 그러한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상호인정이야말로 '공동체' 건설의 기초가 되리라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은 '공동체 건설'이라는 새로운 '꿈'을 제시하는 것으로 21세기말의 혼란을 넘어서고자 애쓰고 있다. 유럽의 이러한 노력을 결눈질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한 지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 박남정 기자